

“자원·에너지분야에서 韓·中경제협력 가능성 많습니다”

대담 / 金 乾 洽
(대한석유협회 홍보실장)



광대한 국토, 11억의 인 구,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中國은 2차대전 이후 공산화됨으로써 자유세계와는 「竹의 장막」으로 굳게 차단되었었으나, 1979년부터 개혁·개방정책을 펴면서 멀게만 느껴졌던 우리에게도 「현실」로써 서서히 다가서고 있다. 요즘 양국 경제인들간의 빈번한 내왕과 교역량의 증대는 최근 변화된 양국간의 관계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출위주의 경제정책이 美國 등 선진국들로부터 견제를 받게 되면서 새로운 활로를 찾지 않을 수 없는 사정도 中國 접근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배경으로 그동안 소위 「적성국」으로 대해 왔던 양국관계는 '88서울올림픽과 그 이전의 아시안게임 등 민간·체육교류에서부터 시작하여 최근에는 경제교류까지 활발히 추진되면서 中國은 우리 경제에 무시할 수 없는 카운터파트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 경제에 있어서 「中國」이 갖고 있는 의미는 크다.

우선 中國은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代替시장으로 방대한 인구, 높은 경제성장 및 교역신장에 의해 향후 잠재력이 큰 우리의 주요수출시장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中國은 석탄, 석유 등 에너지자원과 원면, 곡물, 비철금속 등 원자재가 풍부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점 때문에 안정적인 원자재공급처로서의 기대가



현재 中國은 국내석유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수요 구조가 경질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韓國에서 위탁정제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다.

'88년도 韓中교역량은 1억6천만달러 정도로서 주요제품별 對中國교역현황을 보면, 수출은 전기, 전자, 화학제품, 기계류, 합성섬유등 비교적 국제경쟁력이 있는 공산품이, 그리고 수입은 석유원료, 곡물, 석탄, 석유, 철광석등 1차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최근 中國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표면적으로는 일단 부정적인 면이 많으나, 美國 등 서방국가들이 취하는 각종 제재조치로 中國은 종전보다 우리나라에 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 장기적으로 中國의 에너지개발투자의 정책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27일 상오 석유협회를 방문한 中國化工進出口總公司(China National Chemicals Import and Export Corporation) 부설 國際石油化工貿易研究所(Institute of International Oil and Chemical Trade)의 텡완지(鄧婉知) 부소장을 통해 中國의 에너지사정을 알아 본다.

—韓國과 中國은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

까운 나라였다. 한때 두나라 관계가 멀어지기도 했으나, 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두 나라간의 교류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교역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 우리 정유업계도 中國으로부터 원유를 도입하고 있으며, 또 교류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鄧소장의 협회방문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겠는데 방한목적은 무엇인가.

『협회를 방문한 것은 석유협회를 통하여 한국 석유산업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中國과 韓國은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교류가 있었다. 지금 두 나라는 새로운 교류와 교역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 일행은 지난 7월 18일 내한한 이후 여러 석유화학업체와 기관을 방문, 성공적인 회담을 가졌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양국간의 석유비지니스는 성공적으로 잘 돼나가고 있다. 앞으로 韓中교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믿는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들은 한국 석유업계와 석유화학업체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왔다. 우리는 현지에와서 많이 듣고, 또 많이 배웠다.

中國과 韓國은 경제협력에 있어서 많은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中國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양국간의 합작가능성이 많다.』

—中國化工進出口總公司(SINO CHEM)의 기능은 무엇인가.

『中國化工進出口總公司는 지난 53년에 설립된 中國 최대의 국영무역회사이다. 中國정부가 인정하는 유일한 석유·석유제품 취급회사이다. 본사는 北京에 있으며, 현재 본사에는 1천여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전 세계에 48개소의 해외지사를 두고 있다. 우리 회사의 수출입총액은 中國에서 최대규모로 88년에 1백2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취급하는 품목은 원유와 석유제품 외에도 화학비료, 합성고무, 프라스틱, 농약, 석유원료등 다양하다. 이중 화학비료, 합성고무, 석유원료, 농약등은 우리 회사가 中國에서 취급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이다.

한마디로 中國의 대외무역창구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분명히 단언할 수 있는 것은 中國이 망하지

않는 한 우리 회사는 계속 존속할 것이다. 무역거래상의 문제는 우리와 상담하면 된다.』

-國際石油化工 무역연구소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며, 또 어느 정도 규모인가.

『인원은 35명 정도이며, 에너지조사팀, 원유·석유제품조사팀, 수출조사팀, 수입조사팀, 종합기획실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방문조사를 통해 韓國은 석유제품교역량이 많으며, 특히 나프타와 윤활유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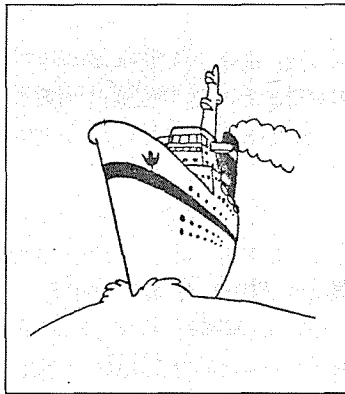
-中國은 에너지, 원자재, 기초설비의 부족이 경제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 이러한 부족현상은 외국기업의 투자환경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中國정부는 외국기업에 많은 특혜를 주면서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자원개발에 주력하는 것으로 듣고 있다. 이 분야의 정책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나.

『中國은 산유국이지만, 공업화 추진으로 국내석유수요가 급증함으로써 석유수출의 여력은 충분치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나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것은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이다. 앞으로 中國은 국내석유수요 증대로 석유류 수입이 늘어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석유수요증대에 대처하기 위해 석유개발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해양유전개발에 대해서는 외

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합작기업에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유가하락으로 외국기업의 관심이 적어지면서 해양석유개발은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유가가 다시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유전개발은 다시 활성화될 것이다. 우리는 한국기업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기업과의 합작개발을 환영한다. 이 사업은 현재 해양석유개발총공사에서 총괄하고 있다.』



-현재 中國은 국내석유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또 수요구조가 경질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의 경질제품 위탁정제문제도 고려해 봄직한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론 그럴 가능성이 많다. 이 문제는 귀국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알려 주겠다. 또 韓國측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면 이것을 토대로 검토할 것이다.』

-韓國에 와서 느낀 점이 있

으면 얘기해 달라.

『韓國에 와서 느낀 것은 우선 韓國사람들이 中國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동안 두 나라의 교류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연구소는 貴협회와 상호자료교환과 정기적인 미팅을 갖기를 희망한다. 두 기관의 미팅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北京과 서울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다. 또 貴협회에서 필요로 하는 우리 자료는 정기미팅때 준비할 수 있으며, 긴급자료는 팩시밀리를 이용해서 서로 교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우리가 한국에 올때만 해도 韓國에 대한 이해가 적었으나, 이번 방한을 계기로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우리는 韓國이 고도경제성장으로 아시아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앞으로 양국간의 교역과 경제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며, 특히 석유화학부문에서 그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게 됐다. 최근 中國사태로 인한 두나라간 경제협력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좀 다른 얘기지만, 현재 우리들은 청소년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中國의 사정은 어떤가.

『현재 청소년문제는 세계적인 문제로 알고 있다. 물론 우리 中國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외가 아니다. 우리 中國에서

도 노년, 중년, 청년세대간의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

나도 열네살 된 딸이 하나 있지만, 청소년문제는 어른들이 억압적으로 다스릴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여자로서 공직생활을 하는데 가정생활에 지장은 없는가.

『여자로서 가정과 직장생활을 양립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남편의 이해와 협조여하에 달려 있다고 본다.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고 가사를

도와주면 쉽고, 안도와주면 어려울 것이다. 남편이 가정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남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과거 4년간 駐덴마크대사관에 근무한 적도 있는데, 남편이 잘 도와 주어서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무역학을 전공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입시가 입시전쟁, 입시지옥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고 또 심각하다. 中國의 입시제도는 어떤가. 北京大學에는 어떻게 들어가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대학은 전액 국비보조이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들어 입시경쟁이 치열하다. 성적이 미달되면 자비로 입학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기있는 학과는 공과대학이며, 또 외국어계열이나 금융학도 인기학과이다.』

-부모로서 나중에 따님은 어떤 학과를 지망하기를 원하나.

『생각이 자꾸 변하는 것 같다. 처음에는 금융학을 전공시키려고 했지만, 컴퓨터를 공부시키려 한다.』

□ 德의 경영학 □

경영의 ‘九德’ 과 ‘九不德’

〈九德〉

- ▲ 관대하면서도 야무지다.
- ▲柔和하면서도 일을 능숙하게 처리한다.
- ▲정실, 정중하면서도 통명스럽지 않다.
- ▲일을 능숙하게 추진해 나가면서도 신중하다.
- ▲은순하면서도 강인하다.
- ▲정직, 솔직하면서도 온화하다.
- ▲대범하면서도 빈틈이 없다.
- ▲剛健하면서도 내적인 충실을 기한다.
- ▲용감하면서도 의롭다.

〈九不德〉

- ▲소심하고 말이 많아서 시끄러운 주제에 야무지지도 못하다.
- ▲심술궂고 모가난 주제에 일처리가 시원치 않다.
- ▲불성실한 주제에 거만하고 통명스럽다.
- ▲일을 수습할 능력이 없는 주제에 태도만은 건방지다.
- ▲난폭한 주제에 氣도 약하다.
- ▲솔직하게 말할 줄도 모르는 주제에 內心은 냉혹하다.
- ▲무엇이든 간섭하는 주제에 全體는 파악할 줄 모른다.
- ▲보기에도 연약해 보이고 속(內)도 텅 비어 있다.
- ▲소심한 주제에 남몰래 못된 짓을 한다.